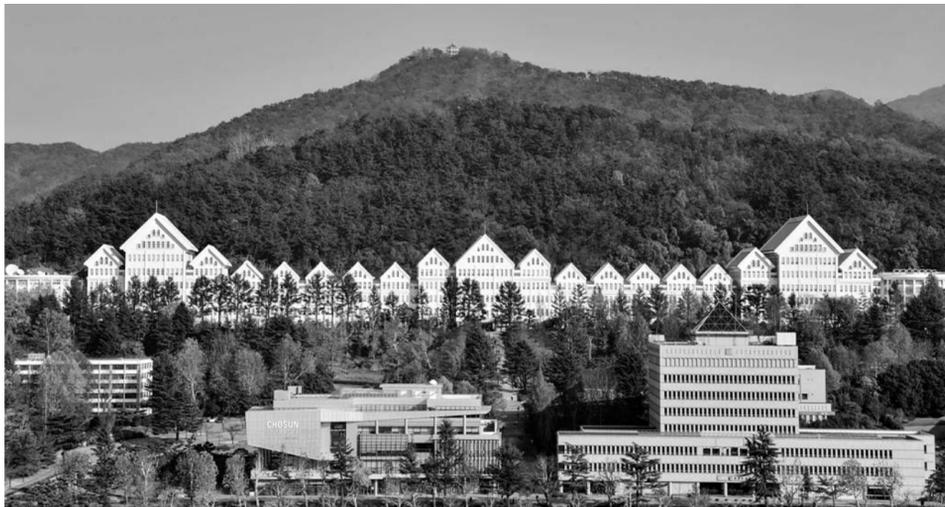


# '총장 논란' 끝난 조선대 정상화 속도 낸다

“강동완 전 총장 해임 정당”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론  
법적·행정적 다툼 일단락  
민영돈 신임총장 오늘 임명



조선대 강동완 전 총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교육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총장 거취를 둘러싼 조선대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임시이사 체제에서 총장 해임과 차기 총장 선출 등으로 1년여 동안 혼란에 빠졌던 조선대학교가 안정화의 길을 찾게 됐다.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의해 직위해제와 해임을 당했던 강동완 전 총장이 해임 부당 등을 주장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에 의해, 해임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조선대의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강 전 총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결정까지 나오에 따라 신임총장 취임을 기점으로 조선대의 정상화 행보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 전 총장이 “법인 이사회의 지난 9월 해임(2차)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 건에 대해 지난 27일 기각 결정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강 전 총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직위해제(1차)와 올해 2월 직위해제(2차)를 내린 데 이어, 3월에는 해임(1차)했다.

이 같은 직위해제 건과 관련, 강 전 총장은 지난 2월 교육부와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당시 교육부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강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은 직위해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후 지난 3월 해임(1차)에 대해 강 전 총장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이의 제기를 했고, 당시 소청심사위는 절차상 하자과 해임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및 해임 취소’를 결정해 또다시 강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조선대가 소청심사위 직책을 받

아들어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총장의 해임(2차)을 결정,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차기 총장 선거가 진행되자 강 전 총장은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결정(1심)이 나자, 다시 항고해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소청심사위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더불어 강 전 총장은 이사회의 2차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두번째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일단 신·구 총장 거

취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다툼은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지난날 1일 직선투표로 선출된 의학과 민영돈 교수가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5일 2년 만에 조선대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만큼 조선대의 갈등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년 대학평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보안사 공개한 5·18 사진첩 은닉·폐기 정황 속속 드러나

‘진입작전상보’ 중요 사진 빠져  
2016년 국가기록원서 확보한  
본보 사진물 중 일부도 없어

39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보안사령부 5·18 사진첩(광주일보 2019년 11월 26일자 1면·27일자 6면) 중 일부 사진이 은닉 또는 폐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8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제공받은 ‘광주시 진입작전상보’를 분석한 결과, 첨부된 5장의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진 한장이 이번에 공개된 13권의 사진첩에는 없었다.

또 광주일보가 2016년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보안사 사진첩 사진물 중 일부도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A4용지 크기 5장으로 구성된 ‘광주시 진입작전상보’ 문건은 1980년 계엄사에 의해 군 내부 보고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김희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 문건은 1980년 5월 27일 도청진압 직후 당시 진압 과정을 담고 있으며, 5장

중 마지막 2장에는 시민군이 총상으로 사망한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5장이 첨부돼 있다.

5장의 사진 중 4장은 이번 공개된 사진첩에 포함돼 있었으며, 시민군이 총상으로 사망한 모습이 찍힌 첫 번째 사진은 공개된 사진첩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 속 사망자 옆에는 ‘K-7’이라는 표시가 놓여 있는데, K는 Kill의 약자로 7번째 사망자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 5·18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망자는 고(故) 윤상원 열사의 사진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군 내부 자료에 쓰인 사진이 이번 공개된 보안사 사진첩에 없다는 것은 보안사가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보안사 사진첩의 촬영경위·목적·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연구자들도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 앞부분의 사진인 1~4권 내에 이런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왜곡 언론·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다음달 4일 발표

‘5·18 진상규명 요구=정치의 화석화’,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혼란·아수라장’, ‘5·18 사기극, 광수, 북한군, 폭동, 제2의 6·25’, ‘햇바다 광수, 공수부대, 내란 음모’, ‘시민이 아닌 사람, 북한통치, 폭동, 게릴라부대’.

신문·방송·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왜곡영상으로 분류된 내용들이 다.

5·18기념재단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모니터링 결과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신문, 방송, 종합편성채널, 유튜브(약 200

여 편)의 5·18 관련 보도와 영상을 월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월별 분석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다룬다. 올 한 해 민언련이 민원을 넣은 5·18 관련 심의와 방송심의 왜곡 언론 편파 보도 관련 심의 결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 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과 함께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 총 110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차단된 영상은 0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성 자원봉사자 자취방으로 불려 “같이 놀자”

### 함평군 간부 공무원 성희롱 ‘논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라

함평군 간부공무원이 근무 중인 여성 자원봉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려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민원인 희롱 사건을 고발합니다-직위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28일 오후 4시 현재 733명이 동의했으며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수정된 상태다.

자신을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과장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해 갔더니, 침대 위에 누워있던 과장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쉬는데 혼자 있으려니 심심해서 불렀다’고 말하고 ‘같이 놀자’, ‘오후에 다시 올 수 있겠느냐고 했다’면서 “개인적으로 병원도 가야하고 일이 많아 다시 올 수 없다고 말한 뒤 급히 방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업무 중인 사람을 근무지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함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사건 기해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함평군은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해 A씨의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

## “전두환 경호, 올해 안에 중지하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촉구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28일 “경찰은 전두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농성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이철성 전 경찰장의 약속대로 전두환과 노태우 경비인력을 모두 철수시켜라”며 “지난달 골프에도

경찰은 경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범죄자인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우를 박탈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농성단은 올해 2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국회 앞에 머물며 의원직 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3명 추락 부상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유동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

119 구급·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추락자들을 응급처치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설자재가 무너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술 취해 도로 위 잠든 20대, 출동 경찰에 욕설하고 순찰차 파손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거구의 20대가 공무원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청.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

가를 도운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등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키 190cm, 몸무게 130kg 달하는 A씨를 연행하기 위해 6명의 경찰관이 동원됐다”며 “A씨는 술에 만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